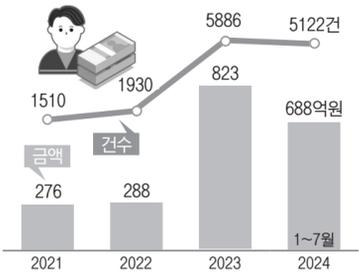


광주·전남 소상공인 '빚더미'...대위변제액 '눈더미'

올 1~7월 광주 364억·전남 324억원...전년 동기 대비 72%·53% ↑
코로나 팬데믹 때 대출로 버티다 고금리·고물가 등 '3고'에 무너져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에 제 때 상환하지 못한 빚이 늘어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극심한 소비 침체로 대출을 통해 버텼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광주·전남 신보 대위변제 추이



연도별로 보면 전남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112억원, 128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397억원으로 1년전보다 3.1배 폭등했다. 전남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532건→2022년 764건→2023년 268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2350건의 대위변제가 이뤄지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침체 시기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통해 버티는 만큼 이자 등 경제적 부담은 증가한 반면, 연대막 이후 현재까지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기조가 지속되며 소비침체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인 지원 수단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만의 키링 만드세요"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티비티샵' 팝업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키링 인형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6일까지 9층 행사장에 대구시 동성로의 유명 소품샵인 이티비티샵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키링 인형에 직접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를 입혀 나만의 키링 인형을 만들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금감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 경감 및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현 상황에 적합한 대출금리 및 조건 등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시행세칙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개정예고 절차를 거쳐,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부터는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앞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반영해야 할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항목 및 공시 기준도 신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찾아 민생 소통

광주지방조달청이 23일 민생 현장 소통을 위해 순천의 혁신제품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엔시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향군 방충망 조달 혁신제품 지정

주식회사 에스엔시는 금속제 창과 방충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기 중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광촉매 기술이 적용된 방충망으로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이 제품은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촉매기술이란 태양이나 형광등의 자외선을 에너지원으로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유해물질과 세균을 분해·제거하는 기술이다.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조달제도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전통시장과 민생금융범죄 예방 나선다

장금이 결연·금융보안관 위촉식

광주은행이 지역전통시장들과 결연을 맺고, 민생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광주은행은 23일 "최근 남광주시장 상인회관에서 '장금이 결연 및 금융보안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의 합성어로, 각 분야를 담당하는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결연을 통해 민생금융범죄를 예방 및 홍보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 조종래 광

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황인협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손승기 남광주시장 상인회장 및 광주·전남 주요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8월 말바우시장·대인시장·순천 옷장·목포 자유시장과의 결연에 이어, 이번에 남광주시장과 신규 결연을 맺게 됐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연식에 이어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관으로 위촉된 광주·전남 주요 전통시장(남광주시장·말바우시장·대인시장·순천 옷장·목포 자유시장) 5명의 상인회장들은 일정 수준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전통시장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상담부터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602.01 (+8.64)
코스닥	755.12 (+6.79)
금리(국고채 3년)	2.864 (+0.026)
환율(USD)	1338.60 (+9.50)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